

2024 Eurasia Special Lecture Series "Vernacularity and Women between Asia and Europe" / 베네치아대학교 / 2024년 5월 2일

조선시대 왕실 여성과 한글 자료

[Royal Women and Korean old Vernacular Materials
in the Joseon Dynasty]



박부자

[Park, Pooja (Sunhshin Women's University)]

목차

1. '왕실 한글 자료' 및 '왕실 여성'의 개념
2. 왕실 여성과 관련한 한글자료의 구체적 사례
 - 2.1. 왕실 여성이 직접 작성한 한글 자료
 - 2.2. 왕실 여성이 직접 사용한 한글 자료
 - 2.3. 왕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글 자료
3. 왕실 여성과 관련한 한글자료의 가치

이 강좌에서는
조선시대 왕실 여성과
관련된 한글 자료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왕실 여성과 관련된
한글 자료의 특징과 가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왕실 한글자료'

- ①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 **작성**한 한글 자료
- ② 국왕 및 왕실 가족이 직접 **사용**한 한글 자료
- ③ 국왕 및 왕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글 자료

(김봉좌2015)

'왕실 여성'

국왕을 중심으로 하여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여성들.

국왕의 부인인 왕비, 국왕의 어머니인 대비, 전 국왕의 부인인 왕대비, 전전 국왕의 부인인 대왕대비, 왕세자빈, 후궁, 공주, 옹주 등이 포함.

(이남희2020)

'왕실 여성'의 한글 자료'

왕비, 대비, 왕대비, 대왕대비, 왕세자빈, 후궁, 공주, 옹주 등

- ① 왕실 여성이 직접 작성한 한글 자료
- ② 왕실 여성이 직접 사용한 한글 자료
- ③ 왕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글 자료

왕실 여성이 직접 작성한 한글 자료

왕실 여성이 직접

저술한

한글 자료

왕실 여성이 직접

필사한

한글 자료

왕실 여성이 직접 저술한 한글 자료

인원왕후

『선군유소』, 『선비유소』

왕실 여성의
한글편지

인현왕후

〈규문슈지여행지도〉

인원왕후

『선군유수』, 『선비유수』



인원왕후(1687~1757)

15세의 나이로 **왕비**에 간택되어 궁중 생활을 시작.
숙종의 세 번째 비.

숙종, 경종, 영조 3대에 걸쳐 65년 동안 **왕비, 왕대비, 대왕
대비**로 있으면서 **왕실과 나라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

글쓰기를 좋아하고 자주 **언문교지**를 내렸다는 기록이 있
음.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국가 대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할 때 조정 신료들에게 언문 교지를
내림.

인원왕후의 언문 교지 사례

- ① 숙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언문전교를 내려 장례 절차를 주관.
- ② 경종 때 왕세제 연잉군 살해 음모 사건 시에도 두 차례 언문교서를 내려 관련자를 처벌하게 하였음.
- ③ 경종 2년 연잉군을 후사로 정하라는 언문교지
- ④ 경종 2년 자신의 치통 치료와 관련한 언문교서 등

자신의 유훈을 책으로 엮어 남겼다는 기록도 있음.

➔ 한글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해 왔음

유훈(遺訓): 죽은 사람이 남긴 훈계(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말)

인원왕후의 저술 총 3권

『선군유수』, 『선비유수』, 『녹아육장』(정하영 2006)

- 2006년 발견. 개인 소장(이병창)
- **왕후의 저술**로 친가에서 보관해 오던 것.
- 현재 원본 자료 전체가 공개된 바는 없음.
- 기사와 연구논저에 실린 이미지 4컷과 판독문으로 그 대략을 알 수 있을 뿐임.
- 세상을 떠나는 1757년(영조 33) 몇 해 전으로 추정.
- 작자나 필사자 등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내용을 통해 작자가 인원왕후임을 알 수 있음.

선군: 선군(先君). 돌아가신 아버지

『선군유수』

절첩본.

청색 비단의 표지로 장정.

붉은 테두리를 한 흰 종이에

'선군유수'라고 표제를 씀.

절첩본.

홍색 비단의 표지로 장정,

붉은 테두리를 한 흰 종이에

'선비유수'라고 표제를 씀.

『선비유수』

선비: 선비(先妣). 돌아가신 어머니

『선군유수』와 『선비유수』의 내용

인원왕후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화 몇 가지를 엮은 것.

인원왕후는 어려서 궁중에 들어온 뒤 병치레가 잦아 부모의 간병을 받음.

그 과정에서 부모의 왕실 출입이 잦았고 궁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았음.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왕실을 출입하면서 겪은 일화가 중심을 이룸.

『선군유수』

왕실 출입을 하면서 겪은 아버지의 일화 몇 가지를 중심으로 엮은 것.

궁중 출입시에 조심하여 궁인들의 칭송을 받음.

국왕이 친근하게 대하려 했으나 공경하는 태도를 변하지 않음.

딸을 특별히 사랑했으나 왕후가 된 후에는 신하의 예를 다하여 사정(私情)을 펴지 못함.

국왕의 특별한 배려를 사양하고 신하의 법도를 지킴.

왕후가 된 딸에게도 배례(拜禮)¹⁴를 하여 신하의 도리를 지킴.

왕후가 베푸는 다담(茶啖)을 사양하거나 조심스럽게 받아 드심.

국왕에게 신하로서의 충성과 절의를 다함.

이 기록을 만들게 된 사정 설명

[판독문]

만년(晩年)에 임금님의 사랑과 은혜가 극진하셔서 혹 큰 비와 눈이 오면 임금께서 명하시어 자비문(差備門: 궁궐 정전의 앞문) 안에 소황문(小黃門: 나이 어린 내시)에게 (아버지께) 우산을 받쳐 젖지 않게 하라고 하시고 또 (아버지께) 목화(木靴: 조선 중·후기 관복에 신던 신)를 벗고 전(殿)에 오르라고 하시니 아버지께서 감히 당치 못하다고 사양하시고, 임금께서 여러 번 명하셨으나 오히려 받들지 아니하시거늘, 내가 일찍이 (아버지께) 권하여 말하기를 “임금의 부탁이 저렇듯 간절하시니 따르는 것이 또한 도리입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목화를 벗고 우산을 받치는 것이 어찌 신하가 감히 할 바이겠는가.” 하셨다.

만년의 상권이 룡둥후샤 혹 큰 우설을 당후면 상이 명후샤 쯤비문 안히 쇼황문으로 후여금 우산을 밧터 써 첨습을 방비후라 후시고 또 후여금 목화를 벗고 던의 오루라 후시되 선군이 감히 당티 못후노라 소양후시고 상이 여러 번 명후시되 오히려 봉승티 아니후시거늘 내 일즉 권후야 골오되 상괴 더러툇 곤절후시니 순종후시미 쏘흔 도리로소이다 선군이 뒤왈 목화 벗고 우산 밧티 미 엇디 인신의 감히 흘 배리오 후시더라

왕후가 베푸는 다담(茶啖)을 사양하거나 조심스럽게 받아 드신 사례

[판독문]

선군이 미양 궤등의 드러오셔든 내 위후야 다담을 베프면 선군이 문득 소양후야
골오샤되 어쥬진찬이 엇디 [천흔 입에] 미양 먹을 배리오 후시고 여러 순 말기를
니루시고 곱히 불안후시니 조로 못 후읍고....

(이미지 출처: 동아일보)

『선비유수』

왕실 출입을 하면서 겪은 어머니의 일화 몇 가지를 엮은 것.

모친이 왕후의 생모로서 근신하고 궁중 출입을 삼감.

궁중에 머무를 때 예의와 법도를 지켜 모범을 보임.

평소에도 언어와 행동에 각별히 조심함.

국왕이 왕후와 모친의 덕행을 칭송함.¹⁷

모친이 법도에 맞게 행동하여 궁인들의 감탄과 칭송을 받음.

집안 사람들에게 궁중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단속함.

딸에게도 신하의 법도를 지키고 작은 선물도 받지 아니함.

[관독문]

금둥의 머므르시는 때면 새벽의 니러나샤 침문 밧기 오샤

내 조으롬 썩기를 기다리시고 내 청후야 누은 자리의 드러오소서

후면 문득 황송후로라 사양후시고 내 소세홀 때면 또 피후시거

늘 내 우수며 못즈와 곱우되 모녀의 정을 어이 이곳티 후시누니

날 분의 지엄후매 감히 설만티 못후노

겻히 겨셔도 물러셔시고 먼니 안쥬오

후후하고....

궁궐에 머무시는 때면 새벽에 일어나시어 침문(寢門: 잠자는 방을 드나드는 문) 밖에 오시어 내가 졸음 깨기를 기다리시고 내가 청하여 “누운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하면 문득 황송하다고 사양하시고, 내가 소세(梳洗: 머리를 빗고 낮을 씻음)할 때면 또 피하시거늘, 내가 웃으며 여쭙어 가로대, “모녀의 정을 어이 이같이 하십니까?” 어머니께서 공수(拱手: 절을 하거나 웃어른을 모실 때, 두 손을 앞으로 모아 포개어 잡음)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분의(分義: 각자의 분수에 맞는 정당한 도리)가 지엄하므로 감히 설만(褻慢: 하는 짓이 무례하고 거만함)히 하지 못합니다.” 하시고 비록 종일 내 곁에 계셔도 물러서시고 멀리 앉으시어 옷 기슭이 서로 닿을까 염려하시고...

왕실 여성의 한글편지

왕실 여성의 한글 편지

왕실 여성이 직접 작성한 한글 자료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글편지임.
현재 전하는 왕실여성의 한글편지는 총 590여편

17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14명의 왕비와 3명의 공주가 남긴 한글편지가 전함.

20
왕후의 편지: 명성황후가 205편 이상, 순원왕후가 113편 이상, 혜경궁 77편, 인선왕후 70편 등

공주나 옹주의 편지: 효종의 딸 숙명공주 1편, 사도세자의 딸 청연공주 7편, 순조의 딸 명은옹주 1편

왕실 여성의 한글 편지

일반 사대부 집안과 마찬가지로 왕실에서도 한글편지는 친족 내의 의사소통 수단이었음.

공주와 왕실 가족 간에, 왕비와 친정 가족 간에 빈번히 한글편지를 주고 받았음에도 전하는 자료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은 왕실의 필적을 외부에 남기지 않고, 반대로 외부의 필적을 대궐 안에 두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

'어필(御筆)'을 간직하려는 사대부 집안의 의지로 왕비의 한글편지는 그나마 많이 전하는 반면, 공주가 대궐로 보낸 한글편지들은 찾아보기 어려움

(이승희 2023)

왕실 여성 한글 편지의 발수신 관계

왕후의 한글편지

후궁, 조카, 손자/손녀, 오빠, 딸, 시누이나 동서, 사촌동생, 사위, 신하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음.

공주나 옹주의 한글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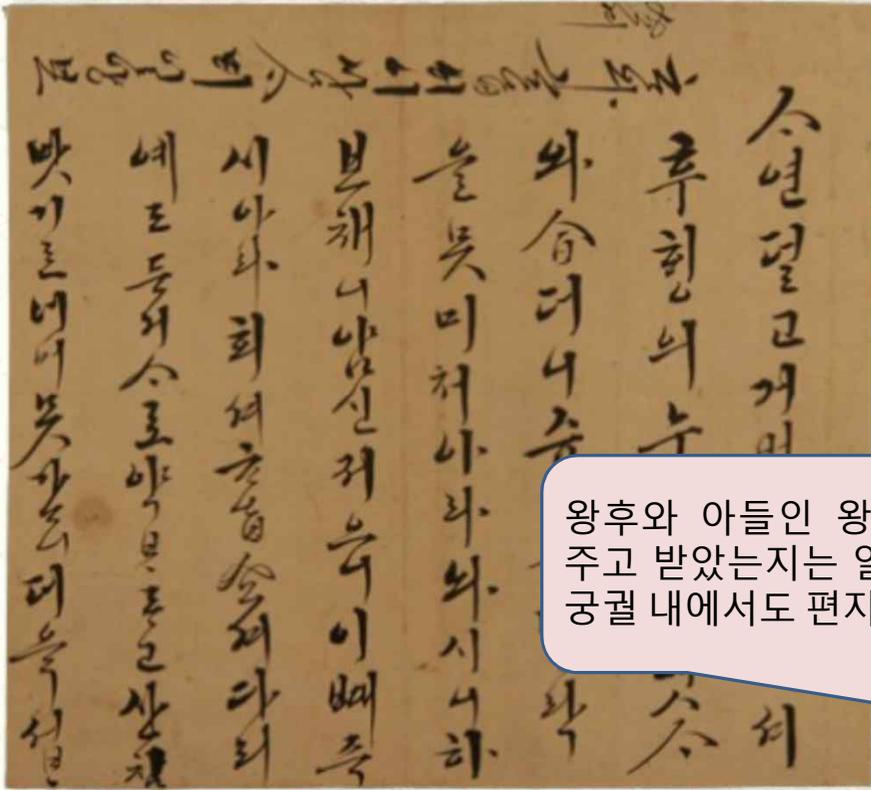
오빠, 아버지, 조카와 조카며느리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음.

(1) 왕후가 남편인 왕이나 시어머니인 대비, 시할머니인 대왕대비 등에게 쓴 편지는 남아 있지 않음.

일반 사대부가 여성들의 편지에서는 남편과 주고 받은 편지나 시부모님께 보내는 문안 편지가 다수 남아 있는 것과 비교됨. 본래부터 쓴 편지가 없는 것인지 남아 있지 않은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음. '궁'이라는 공간적 특성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

(2) 왕후가 아들인 왕이나 세자에게 쓴 편지도 전하지 않음.

일반 사대부가 여성들의 편지에서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다수 전하는 것과 비교됨.
현종이 어머니 인선왕후에게 보낸 편지에서 '회서(回書: 답장)'하시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전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현종이 어머니 인선왕후에게 보낸 편지

[판독문]

수연 덜고 거번 가실 제 서후의 늦말을 엿조와습더니
슈슈 등 발락을 못 미쳐 아라 와시니 하 보채니 암신저으니
이때 즉시 아라 회서후읍쇼셔 다리에 도든 거수로 약 부르고
산침 맞기로 너머 못 가누니 더욱 섭섭후와 후읍너

왕후와 아들인 왕이 일상적으로 얼마나 편지를 주고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궁궐 내에서도 편지를 주고 받았음을 알 수 있음.

때 서후행의 늦말(누이에 대한 말?)을 여과를 미쳐 알아오지 못하였는데 너무 보

채니 암신스러우니 이때 즉시 알아서 회서하십시오. 다리에 도든 것 때문에 약 맞고 산침을 맞기로 넘어가지 못하니 더욱 섭섭합니다. 둘째, 셋째, 넷째 누이와 함께 보십시오.

왕실 여성 한글 편지의 발수신 관계

(3) 왕실 여성, 특히 대비의 경우 친인척이 아닌 남성에게 보낸 편지가 존재함.

대비(정조의 어머니 혜경궁홍씨)의 경우 공무를 위해 조정의 대신들에게 사적으로 편지를 하는 일이 있었음.

일반 사대부 여성의 경우 친족이 아닌 남성과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극치 이례적인 사건이고 금기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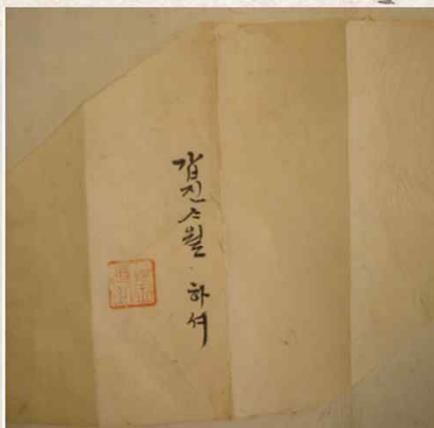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현종의 비 명성왕후(1642-1683)가 고향에 내려간 송시열에게 조정으로 들어오라며 보낸 것 1건,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이 영우원(永祐園, 사도세자의 능) 이장에 직접 참석하려는 정조를 만류하라며 채제공에게 보낸 것 1건,
순조 비 순원왕후가 수렴청정 시기에 청북어사(淸北御史)로 임명된 심승택에게 임무를 수행하기 전 보낸 것 1건,

순종의 첫째 비인 순명효황후가 세자빈 시절에 순종의 스승 김상덕에게 보낸 것 12건이 전부임.

송시열, 채제공, 심승택에게 쓴 편지는 언문으로 쓴 왕후의 명령서로 따로 분류하기도 함.

19세기 말~20세기 초 순명효황후가 순종의 스승 김상덕에게 보낸 한글편지는 왕실 여성이 친족 외의 사대부 남성에게
개인적인 안부를 전하려 보낸 것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

순명효황후가 황태자비 시절 세자의 스승에게 보낸 편지



[관독문] 양초 봉서 보옵고 기간 느리 불평이 지너오시는가 보오니
 답답 일캣수오며 예는 대소도 문안 안녕호오시니 축슈오며
 화재의 기시 창황호오른 일을 것 읍수오며
 나는 잘 잇수오이다 사월 십팔일

25

[현대어역]

[두 차례 봉서 보옵고 그간 늘 평안치 못하게 지내시는가 보니 답답하
 여 입에 올리고 지내며, 여기는 대조와 소조 문안 안녕하시니 축수하
 으며, 화재(火災)가 났던 그때 당황스러움은 말할 것 없사오며, 나는
 잘 있습니다. 사월(四月) 십팔일(十八日)]

(1904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양초 봉서 보옵고 기간 느리 불평이 지너오시는가 보오니
 답답 일캣수오며 예는 대소도 문안 안녕호오시니 축슈오며
 화재의 기시 창황호오른 일을 것 읍수오며
 나는 잘 잇수오이다 사월 십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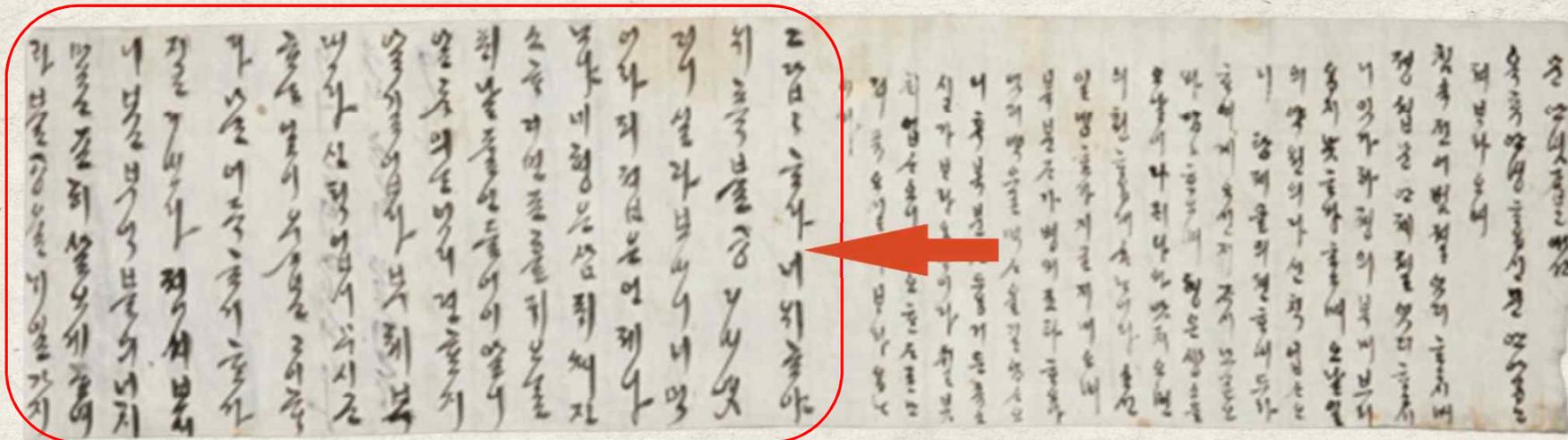
왕실 여성 한글 편지의 내용

왕실 여성의 한글편지에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

정치적 내용을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순원왕후가 김홍근에게 보낸 편지들과 명성황후가 조카 민영소에게 보낸 편지 등임

이외에 불교에 대한 믿음을 보이거나 무속에 기대는 모습도 보임.

정순왕후가 조카 김노서에게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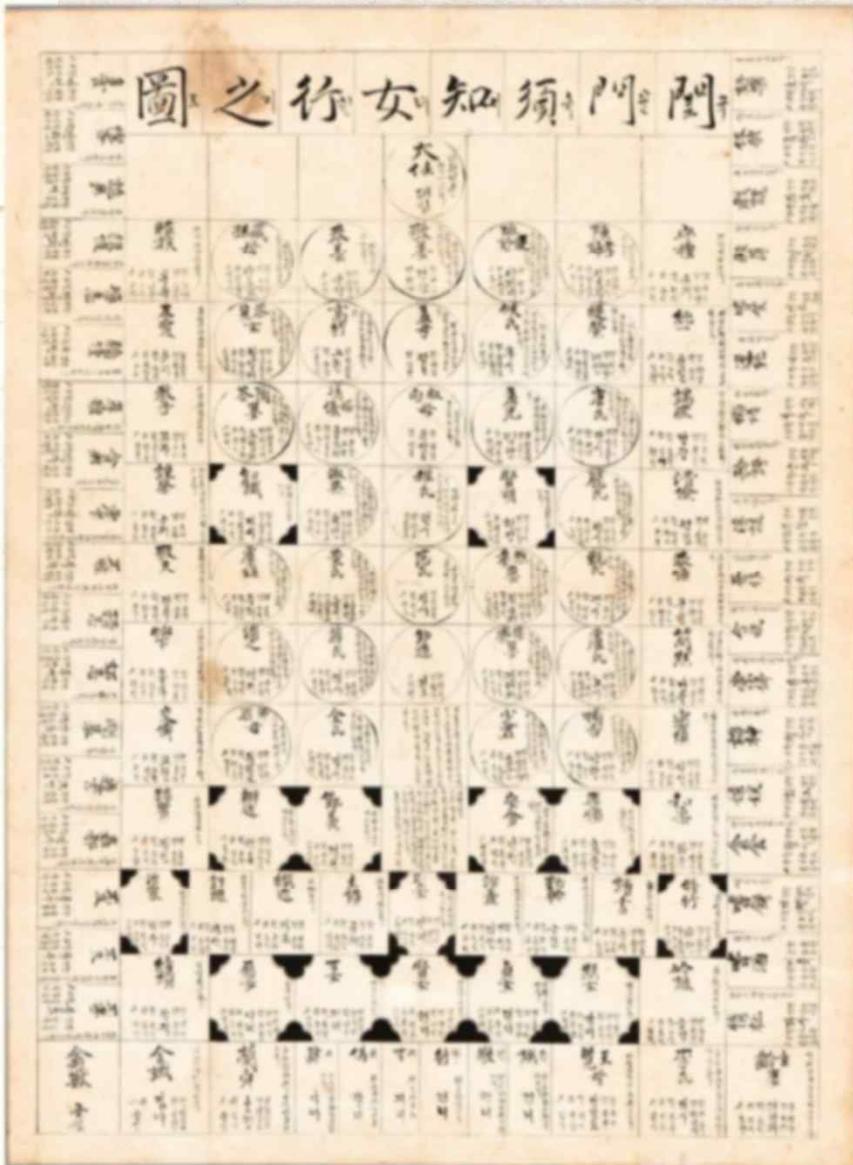


[판독문] 너 위하여 위축불공 디내엇더니 실과 보내니 너 먹어라 피접은 언제 나누냐 ...
 점서 보네니 보고 부엌 불의너치 말고 쪼히 살오게 하여라
 불공을 너일가지 디내 둠 잡거나 그리하지 말게 하여라

[건강이 좋지 않았던 김노서를 위해 불공을 지냈음을 알리고, 점서를 보내니 부엌 불에 넣지 말고
 깨끗이 불사르라거나 닭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금기 사항을 전함]

인현왕후

〈규문슈지여횡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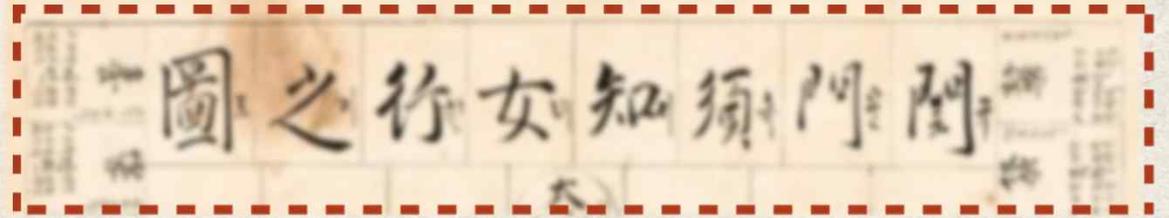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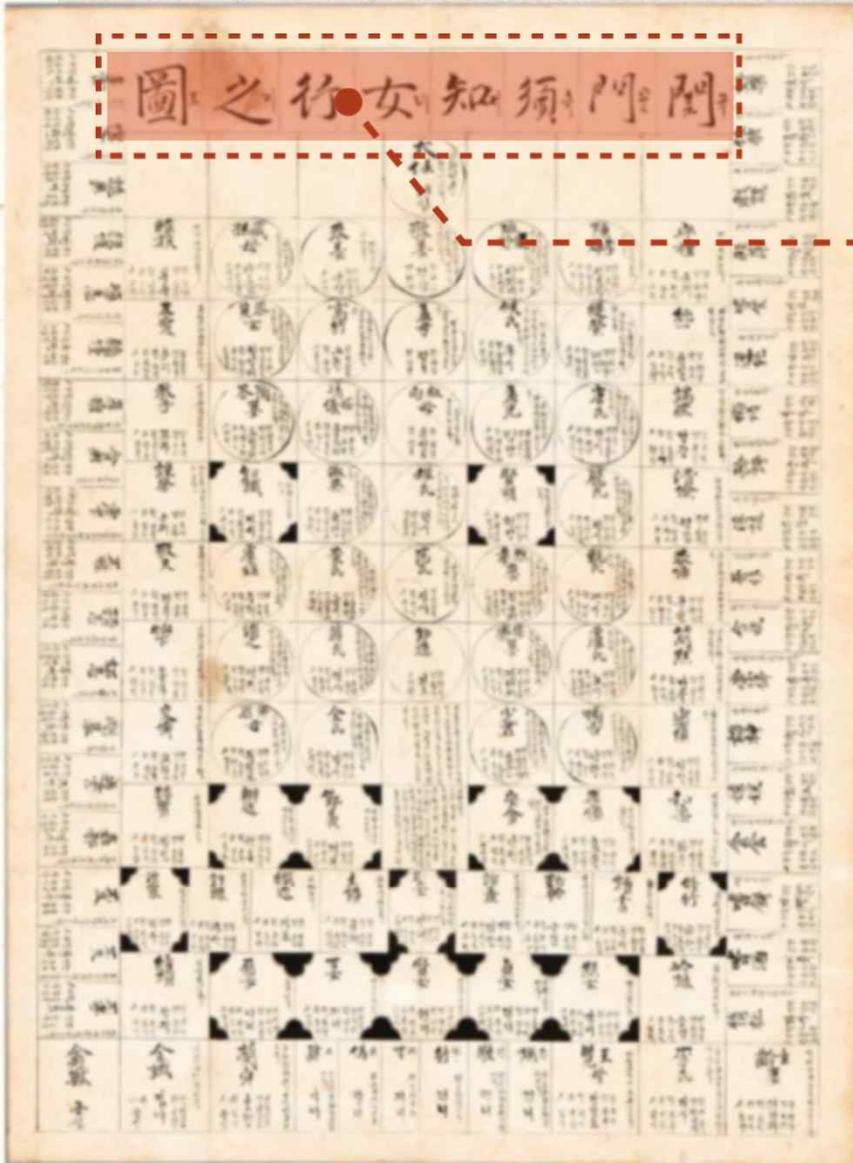
인현왕후의 〈규문슈지여행지도〉

인현왕후가 그린 일종의 주사위 놀이판

숙종의 두 번째 부인인 인현왕후가 중전에서 폐위되어
 30 사저에 있을 때 제작하여 다시 궁으로 돌아가던
 1694년에 이복동생 민씨에게 전해준 놀이판.

현전하는 것은 민씨의 현손(고손자)이
 임자년(1852년?)에 베낀 것.

인현왕후가 제작한 것이기는 하나 인현왕후 친필은 아님.



규문(閨門)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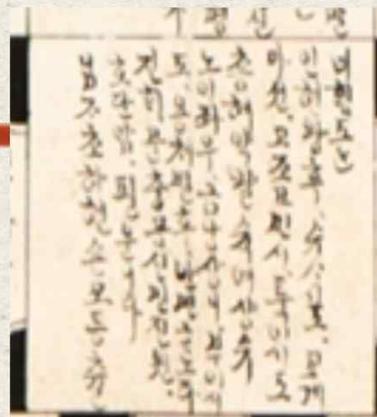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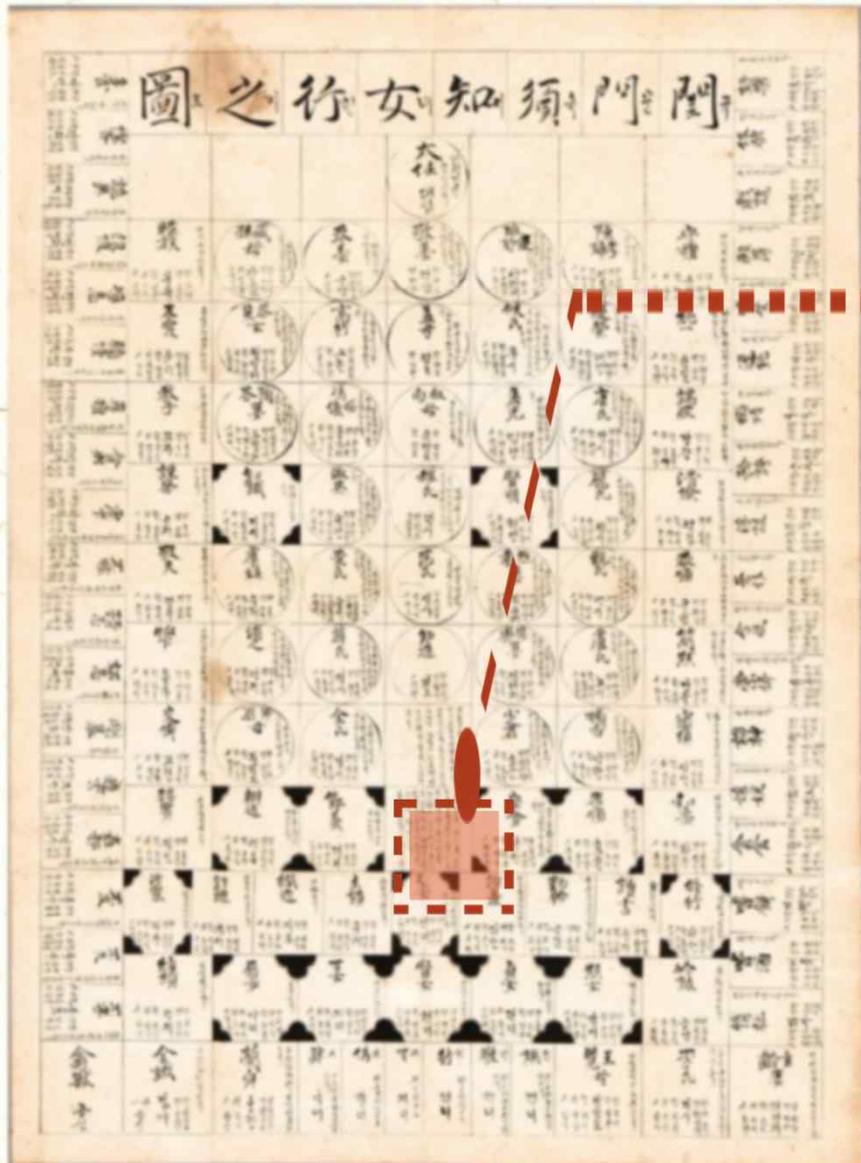
슈지(須知)

반드시 알아야 함.

여행(女行)

여자로서의 행실.

-> 여성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덕과 행실을 그린 그림



여행도(女行圖)는 인현황후(仁顯王后)께서 손수 이 여행도를 그리시어[슈스시도(手寫是圖)], 우리 돌아가신 고조모 민 씨(高祖母 閔氏)를 교육하고 경계하셨다. …(중략)… “숙녀로서 항상 지니고 있고, 늙어서도 곁에 두어라. 이제 이별하게 되어 이 여행도를 주노라. 이로써 이별 후에 얼굴 보는 것으로 대신하여라.” (이 말은) 신해년(辛亥)에 호(號)가 단암(丹巖)인 문충공(文忠公) 신(臣) 민진원(閔鎭遠)이 썼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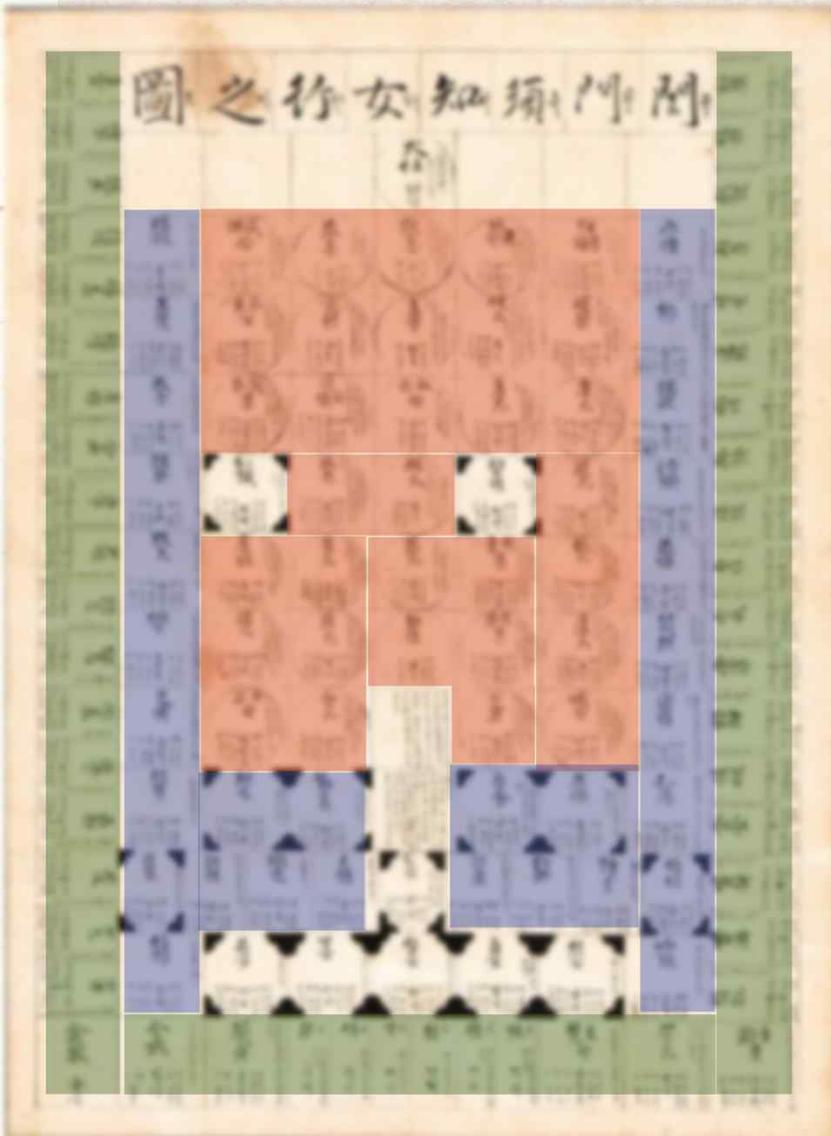
임자년(壬子) 초여름에 현손(玄孫) 아무개가 베끼어 냈다.

이 자료의 작성자 : 인현왕후

경위 기록자 : 민진원

전사자 : 현손 아무개

▷ **친정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 작성하여 전해줌.**



놀이판의 구성

- 119항목으로 구성 -

① 악녀나 악행 : 48가지

<예> 禽獸 증싱

② 여성들이 지켜야 할 행실 : 30가지

<예> 治家 치가 [집 다사림이라]

③ 뛰어난 여성들의 이름과 행적 : 32명

칸 안에 ○로 별도 표시

<예> 楊香 양향

[아비를 범이 물어가거날 내달아 치고 안으니라]



각 칸의 구성

敬夫

한자로 각 칸 항목의 명칭을 적은 것.

경부

한자로 적은 명칭 밑에 명칭의 한자음을 적은 것

남편 공경함이라

명칭에 대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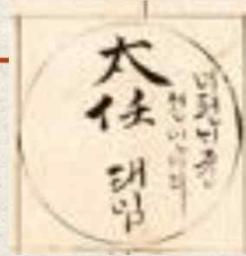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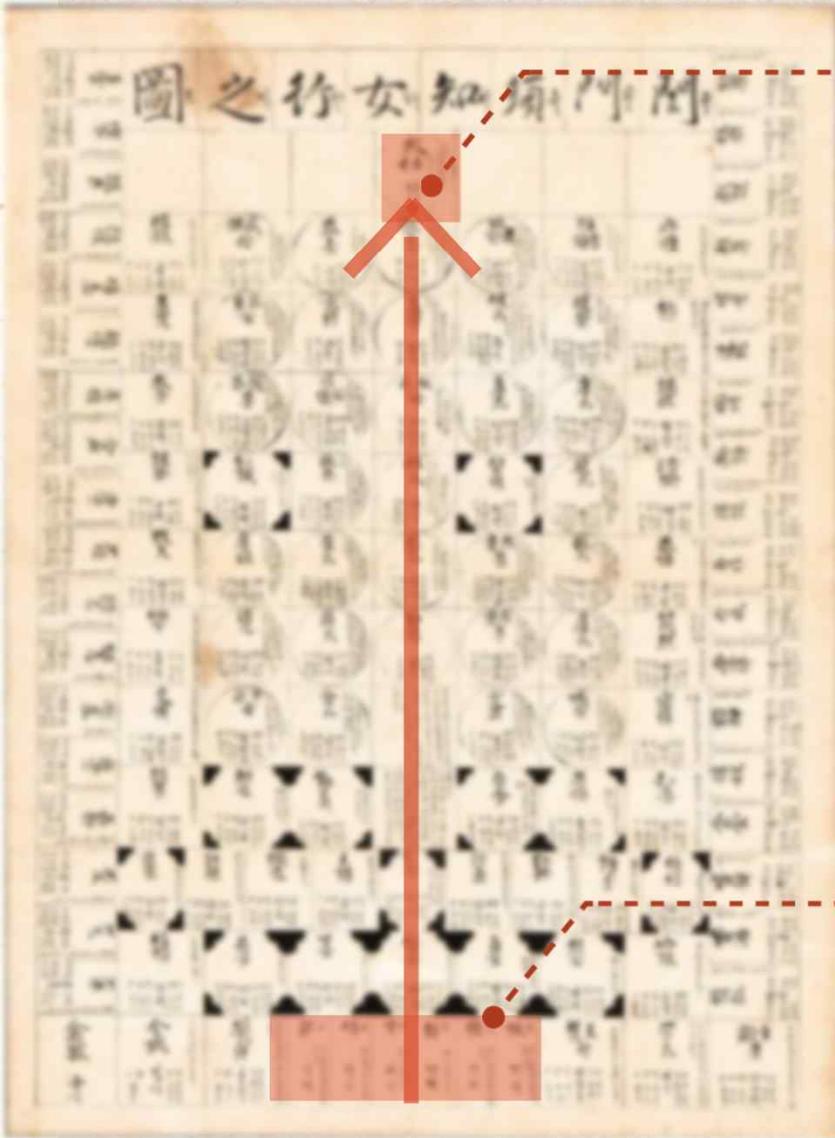
성 교자 / 경 근제 / 힝 심신 / 위 화유 / 스 교련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글자에 따라
나아갈 칸의 위치를 지시한 것.

敬夫

남편 공경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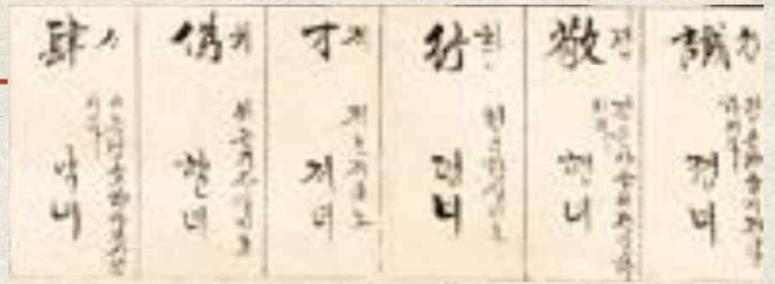
스 교련 위 화유 힝 심신 경부 경 근제 성 교자



놀이 방법

맨 아랫줄 "소(肆), 위(僞), 지(才), 행(行), 경(敬), 성(誠)"에서 출발
 ↓
 맨 위 '태임(太任)'에 오르면 놀이가 끝남.

"소, 위, 지, 행, 경, 성"이 새겨져 있는 육면체의 주사위를 굴려서 지시하는 대로 칸을 움직여 '태임'까지 오름.



인현왕후의 <규문슈지여행지도(閨門須知女行之圖)>

여성의 교육과 놀이를 병행한 자료 (김일근 2002)

남성의 <종경도(종경도)>(벼슬길)나 <승경도(승경도)>(팔도경치)와 같은 방식의 놀이
<종경도>나 <승경도> 같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놀이판은 한문본, 한글본이 모두 남아 있고
20세기 중반의 것까지도 확인됨.

36

여성을 대상으로 한 놀이는 인현왕후가 만든 <규문슈지여행지도(閨門須知女行之圖)>가 유일함.

이 놀이를 통해 여성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본받아야 할 여인과

그러지 말아야 할 여인의 행적을 체득하게 됨. (임치균 2006)

왕실 여성이 필사한 한글 자료

효의왕후
『坤殿御筆』

덕온공주
『주경던기』

효의왕후
『坤殿御筆』

효의왕후 『坤殿御筆』



효의왕후의 사촌인 김기후가 왕후의 친필 글씨를 집안의 가보로 삼고자 하는 뜻을 전하여 효의왕후가 손수 글씨를 써서 내린 책.



표지 : 청록색 바탕에 모란꽃 무늬를
붉은색으로 수를 놓아 장식한 비단

표제 : 坤殿御筆

▷ 坤殿 : 왕비가 거처하던 궁전.

그곳에 있던 왕비를 높여 이르는 말

⁴⁰▷ 御筆 : 왕족이 손수 쓴 글씨

▷ "왕비의 친필"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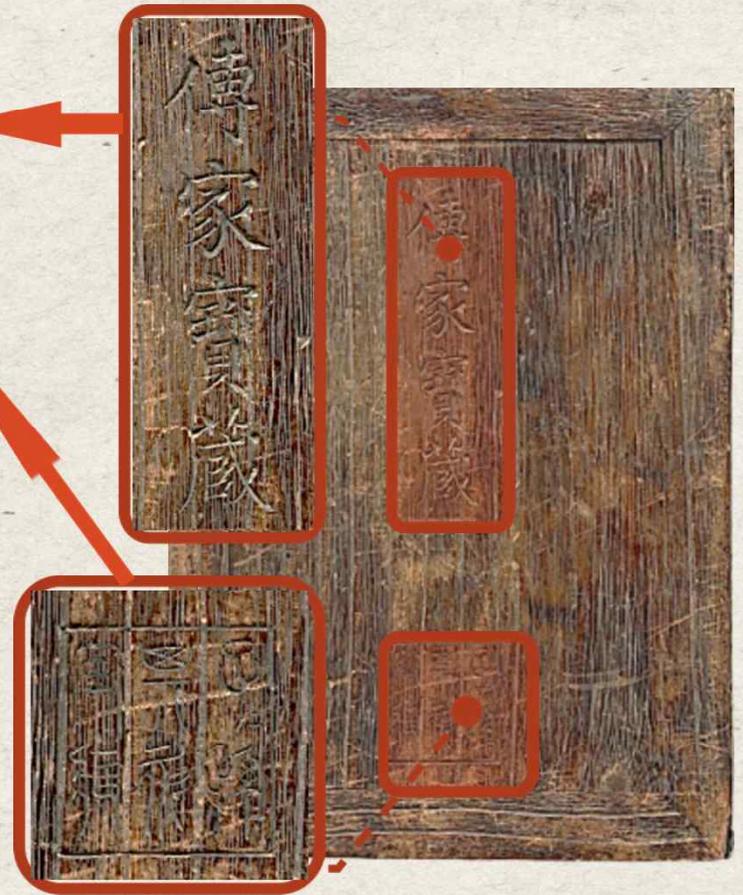
효의왕후의 『坤殿御筆』은 별도의 나무 상자에 담겨 보관됨.

傳家寶藏 집안에 전하는 보배를 간직하다

子孫其永寶藏 자손들은 영원토록 보배로 간직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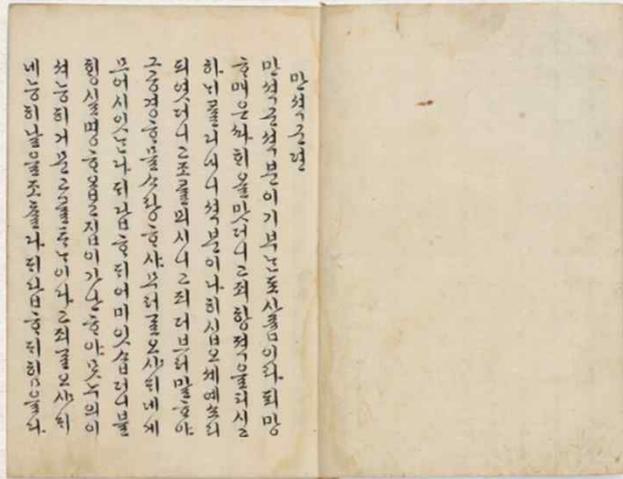
이 나무 상자는 궁에서 제작된 것인지 (김인회 2015)
친정 가문에서 제작한 것인지는 알 수 없음.

궁중에서는 정조의 홍재전서처럼
귀중한 서책을 나무로 만든 상자에 보관해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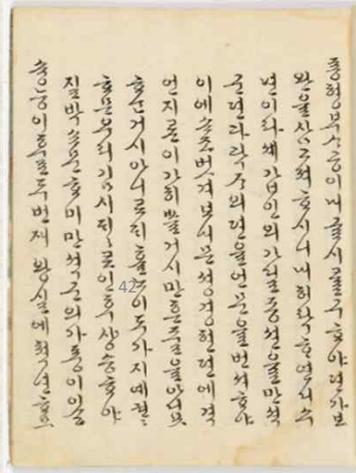


『곤뎨어필』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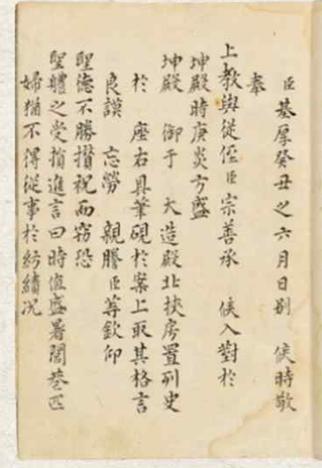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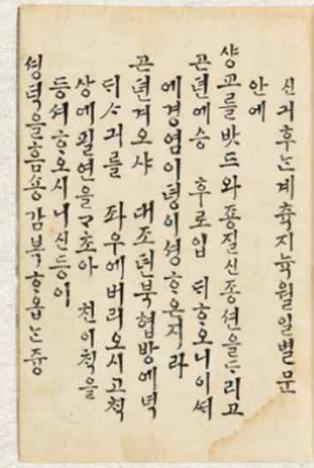
① 효의왕후 필사 <만석군뎨>, <곽씨의뎨>



② 효의왕후 발문



③ 김기후의 한글발문, 한문발문



<제작 경위>

[판독문]

종형 부수공이 내 글시를 구하야 댐가 보완을 삼고져 하시니 내 허락후연
디 수년이라 세 갑인의 가덜 종선으로 만석군뎨과 곽주의뎨을 언문으로 번
셔(飜書)하야 이에 손조 벗겨 보내믈.....

사촌 오라비 부사공(府使公, 김기후)이 내 글씨를 얻어 집안 대대로 전하는
보배[댐가보완(傳家寶玩)]를 삼고자 하시니 내가 허락한 지 수년이다. 갑인
년(甲寅, 1794년)에 조카 종선(從善)으로 (하여금) 만석군뎨(萬石君傳)과
곽자의뎨(郭子儀傳)을 언문(諺文)으로 번역하게 해서[번셔(飜書)] 이에 (내
가) 손수 베껴 보냄은...

양청함오되
 명성성모 친필이저동종가에게
 오셔세전함읍논보장이되어스오
 니
 계술지 성의로 친필를 누리옵
 시면집안에즈즈손손이보완함을
 분아니와
 공스에광절함은 성스되오리다함
 오니신의말씀을 조츠샤 슈셔
 일권찰을 누리옵시고 교훈함
 오신글을 친이짓조오셔통효근
 신을가전지업으로신신이 칙면
 함오시니 오회라우리후손이
 성고만분지일을양혜함야통근지통
 을세세상승함오면이훈권찰이장
 첫문호를창대함을근본이되올셔셔
 신귀후근셔

이로 인하여 청(請)하되 “명성왕후(明聖王后)의 친필(親筆)이 재동(齋洞) 종가에 있어 대대로 전하는 보장(寶藏: 보물)이 되었사오니 뜻을 잇는 거룩한 마음[계술지성의 (繼述之聖意)]으로 친필을 내리시면 집안에 자자손손이 보배로 여길 뿐만 아니라 조정과 민간에 두루 대단하고도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니 (왕비께서) 신의 말씀을 좃으시어 손수 글씨를 쓰신[슈셔(手書)] 책 한 권을 내리시고 교훈하시는 글을 친히 지으시어 충효근신(忠孝謹愼)을 가문에 전하는 업[가전지업(家傳之業)]으로 삼기를 간곡히 권하시니....

[관독문] 인하여 양청함오되 명성성모 친필이 썩 종가에 겨오셔 세전함읍논 보장이 되어스오니
 계술지성의로 친필를 누리옵시면 집안에 즈즈손손이 보완함을 분아니와
 공스에 광절함은 성스되오리다 함오니 신의 말씀을 조츠샤 슈셔 일권찰 누리옵시고
 교훈오신 글을 친이 짓오셔 통효근신을 가전지업으로 신신이 칙면오시니

<제작 경위>

1793년 6월에 사촌 김기후와 조카 김종선이 효의왕후께 문안을 올리러 갔는데 왕후가 역대 역사책을 옮겨서 책을 쓰고 있었음. 이때 집안의 보물로 삼기 위해 친필로 글을 써 줄 것을 요청.

효의왕후가 보던 역사책에서 <만석군전>과 <곽자의전>을 선정, 조카 김종선에게 우리말로 번역을 시킴.

조카 김종선의 언해본을 효의왕후가 손수 베끼고 발문을 씀.

거기에 김기후가 한문으로 발문을 작성하고 이를 언해하여 언해 발문은 김기후가 필사하고 한문 발문은 김기상이 필사함.

덕온공주
『주경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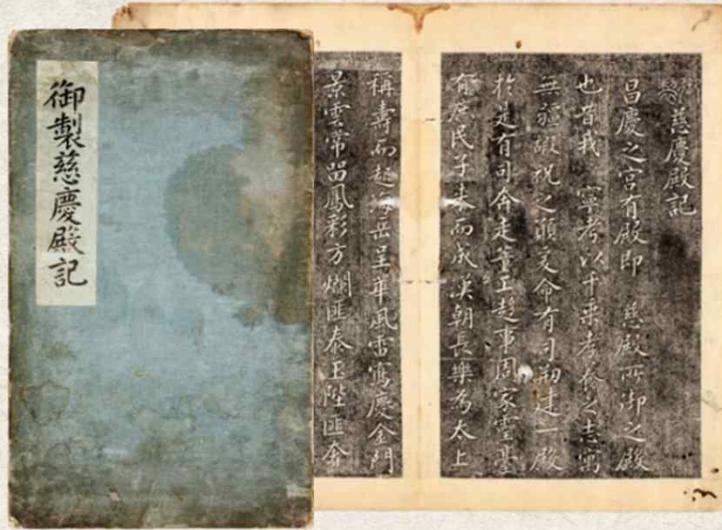
덕온공주의 『자경전기』



권수제: 자경전기
 * 자경전기: 자경전기(慈慶殿記).
 자경전에 대한 기록.

아버지 순조가 한문으로 지은 『자경전기』 원문의 한자음을 한글로 적고 토를 단 뒤 이어서 우리말 번역문을 적은 글.

<순조의 「慈慶殿記」 표지 및 1면>



- 한문본, 탁본(금속이나 돌 등에 새겨진 글씨나 무늬를 먹으로 찍어낸 종이)
- 1808년 어머니 효의왕후의 명으로 지음.

<덕은공주의 「자경전기」 표지 및 1면>



- 언해본, 한글 필사본
- 1822~1844년 어머니 순원왕후의 명으로 필사. (누가 번역한 것인지 알 수 없음. 순조가 어머니 효의왕후를 위해 한문본 자경전기를 우리말로 번역하였을 것으로 추정)

<덕온공주 『주경던기』>

<순조의 『慈慶殿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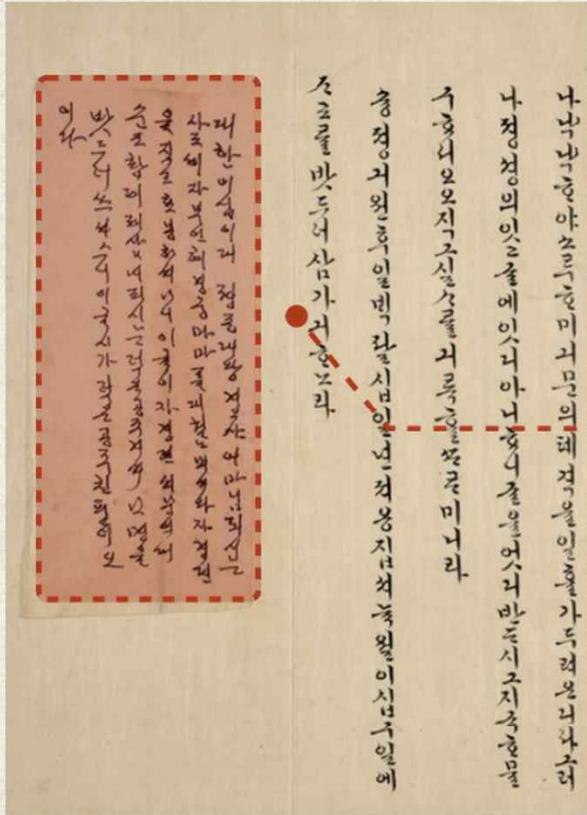
주경던기
 창경궁에 던이 이시니
 주년어 혼모시라 던이나 세우리
 던은 거 모 처 창궁호 양 혼모 시는 뜻으로 화무강이가 혼
 혼모 시는 원을 보리 모 사 이에 무스 를 명을 사 혼년
 을 창궁에 혼모 시 니 의 무 시 본 국의 공인 을 통 리 혼

昌慶之宮有殿即 慈慶殿所御之殿
 也昔我 寧考以十乘孝養之志寓
 無疆嘏祝之願爰命有司初建一殿
 於是百司奔走董工趨事周家靈臺

- ① 한문본 『주경던기』
: 昌慶之宮 有殿
- ② 언해본 『주경던기』
: 창경지궁에 유던하니
- ③ 언해본 『주경던기』
: 창경궁에 던이 이시니

언해부분

한자음+구결



자료의 끝에 덕온공주의 손녀 윤백영 여사가 쓴 기록이 있음.

대한 이십이대 정종대왕겨오샤 어마님 되시는 사도세자 부인 혜경궁 마마를 대궐노
 되셔 와 자경연을 짓고 효봉하셔나니 이 글이 자경연 쇄문의 대순조황데 제삼녀
 되시는 덕온공주겨셔 모명을 밧드려 쓰셔스니 이 글시가 덕온공주 친필이오이다

덕온공주의 친필임을 밝히고 있음.

자경전은 어떤 곳인가?

자경전(慈慶殿): 창경궁 안에 있던 왕비가 살던 집.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正祖, 1752-1800)가 어머니 혜경궁(惠慶宮, 1735-1815)을 잘 섬기기 위해 1777년(정조 1)에 창경궁의 양화당(養和堂) 옆 작은 언덕에 지었음.
1777년(정조 1) 5월 16일에 완공하여 1778년(정조 2) 5월 2일부터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처소로 쓰였으나, 현재 창경궁에는 자경전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음.

조경던기는 바로 이 전각에 대한 기록임.

'조경(慈慶)'은 자전(慈殿, 임금의 어머니)의 장수를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음.

(고은숙 2019)

연도	자경전 관련 주요 사건 및 기록
1777년(정조1)	정조正祖(1752-1800)가 어머니 혜경궁惠慶宮(1735-1815)을 위해 자경전慈慶殿 건립
1802년(순조2)	정조 승하 후 혜경궁은 며느리 효의왕후孝懿王后(1753-1821)에게 자경전을 양보하고 경춘전景春殿으로 거처를 옮김
1080년(순조8)	순조純祖(1790-1834)가 어머니 효의왕후의 명으로 『자경전기慈慶殿記』를 지음

정조의 자경전 건립 → 아들 순조의 자경전기 저술 → 손녀 덕온공주의 한글본 조경년의 필사

정조 비 효의왕후는 아들 순조에게 아버지 정조를 본받게 하려고 『자경전기』를 짓게 하였고, 그 뜻을 이어 순조 비 순원왕후도 막내딸 덕온공주에게 순조의 『자경전기』를 한글로 필사하게 함

조선 왕실 3대로 이어지는 효심을 보여주는 자료

『자경전기』의 내용

정조가 자경전을 지은 목적

'자경(慈慶)'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

효의왕후가 혜경궁 홍씨의 양보로 자경전에서 지내게 된 사실

효의왕후의 명으로 순조가 자경전기를 짓게 된 점

창경궁 내 자경전의 위치

효의왕후의 아름다운 덕

자경전에서 바라본 주변 환경

자경전의 빼어난 경치와 사계절 등

왕실 여성이 직접 사용한 자료

복식 지침서
『소절복식조장요람』 등

한글 고전소설

중국역사서
『덩수기람』

56

왕실 여성이 직접 사용한 한글 자료는 주로 왕실 문화를
익히기 위한 지침서나 교육을 위한 자료들임.

복식 지침서
『스절복식조장요람』 등

왕실의 복식 지침서 『수절복식조장요람』 등

숙명여자대학교 소장본 『수절복식조장요람』 『국기복식소선』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소장본 『법복 수절복식』 『국기복식소선』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수절복식조장요람』

58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복식 규범(服飾規範)을, 발기[件記]를 담당하는 궁인(宮人)에 손에 의하여 몇 벌씩 사본(寫本)을 만들어 세자빈이든 정식 왕비이든 후궁이든 독립 세대를 영위하게 되면 한 벌씩 위에서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용숙 1987)

사절복식조장요람

사계절 복식과 장신구를 착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내용을 뽑아 놓은.



국기복식소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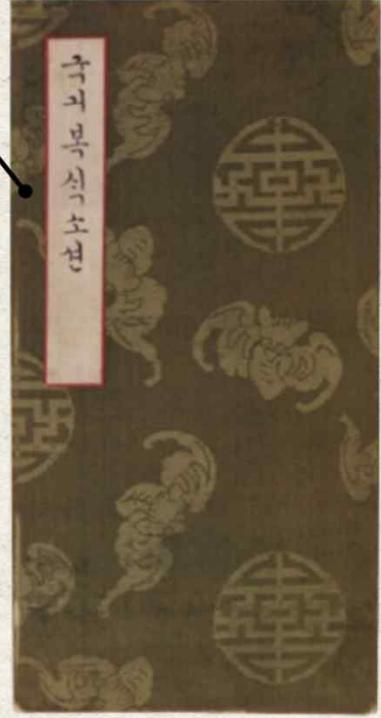
왕과 왕비의 제사일인 국기(國忌) 때 입는 옷과 장신구, 머리 모양 등을 적은 책



순화궁

*순화궁: 현종의 후궁인 경빈김씨의 처소, 이 지침서의 사용처로 추정

국기복식소선



범복 소절복식

범복(왕과 왕비·왕세자·세자빈의 예복)과 사계절복식

표지서명: 수절복식주 장요람

표지: 녹색 비단

수절복식주 장요람



1. 이 책은 조선 고종 11년(1876)에 펴낸 것으로, 이 책은
 2. 이 책의 내용은 조선 고종 11년(1876)에 펴낸 것으로, 이 책은
 3. 이 책의 내용은 조선 고종 11년(1876)에 펴낸 것으로, 이 책은
 4. 이 책의 내용은 조선 고종 11년(1876)에 펴낸 것으로, 이 책은
 5. 이 책의 내용은 조선 고종 11년(1876)에 펴낸 것으로, 이 책은
 6. 이 책의 내용은 조선 고종 11년(1876)에 펴낸 것으로, 이 책은
 7. 이 책의 내용은 조선 고종 11년(1876)에 펴낸 것으로, 이 책은
 8. 이 책의 내용은 조선 고종 11년(1876)에 펴낸 것으로, 이 책은
 9. 이 책의 내용은 조선 고종 11년(1876)에 펴낸 것으로, 이 책은
 10. 이 책의 내용은 조선 고종 11년(1876)에 펴낸 것으로, 이 책은



춘추동의 다 추니라
 자루좁치는

자루좁치는 뉴청은 자덕저고리의 추고
 빅은 춘추동의 다 추니라
 * 자루좁치: 자라 모양의 주머니 노리개

[자라주머니(노리개)는 유청색은 자주색
 저고리에 차고 백색은 춘추동(春秋冬:
 봄, 가을, 겨울)에 찬다.]

덕온공주 자라좁치 노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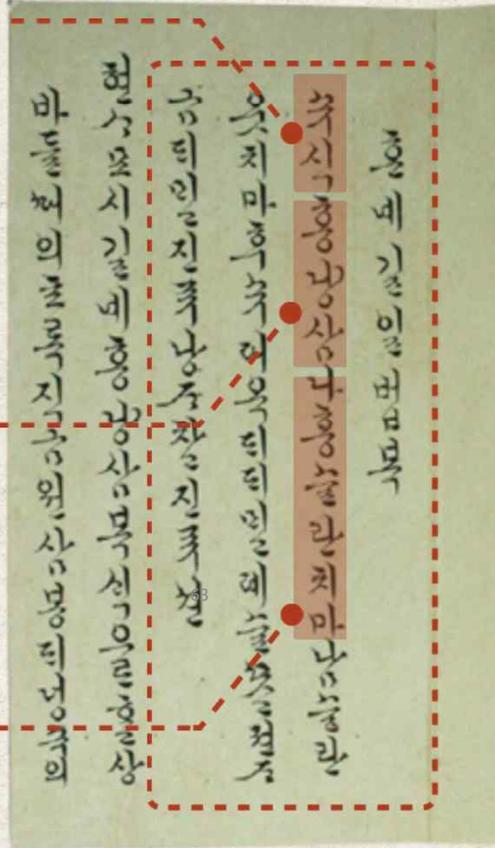
영친왕비 수식



복은공주
홍장삼



홍색
대란치마



혼례 길일 법복

수식 홍당삼 다홍슬란치마 남슬란웃치
마 남슬란웃치마 후슈... 진주낭주 차고
진주선

혼례 길일에 입는 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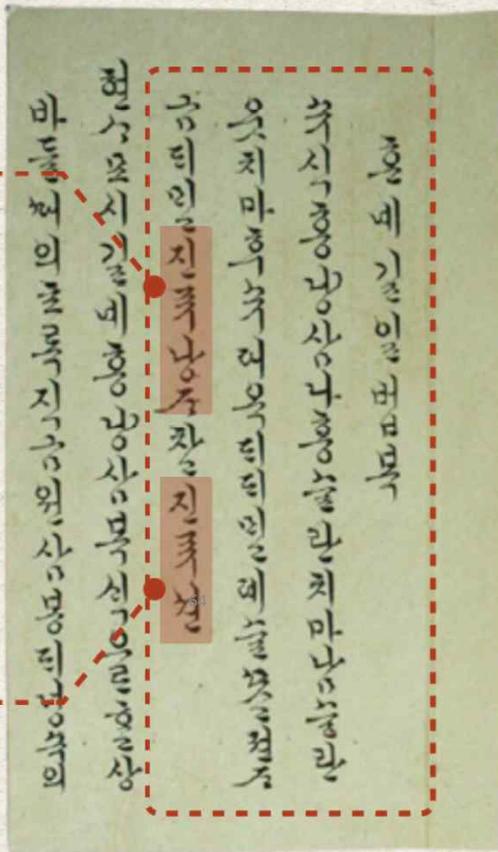
수식, 홍장삼, 다홍색스란치마, 남색 스란
웃치마, 후수...진주낭자 차고 진주선(을
든다)

진주낭자



진주선

→ 왕실 혼례에서 신부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용 (국립고궁박물관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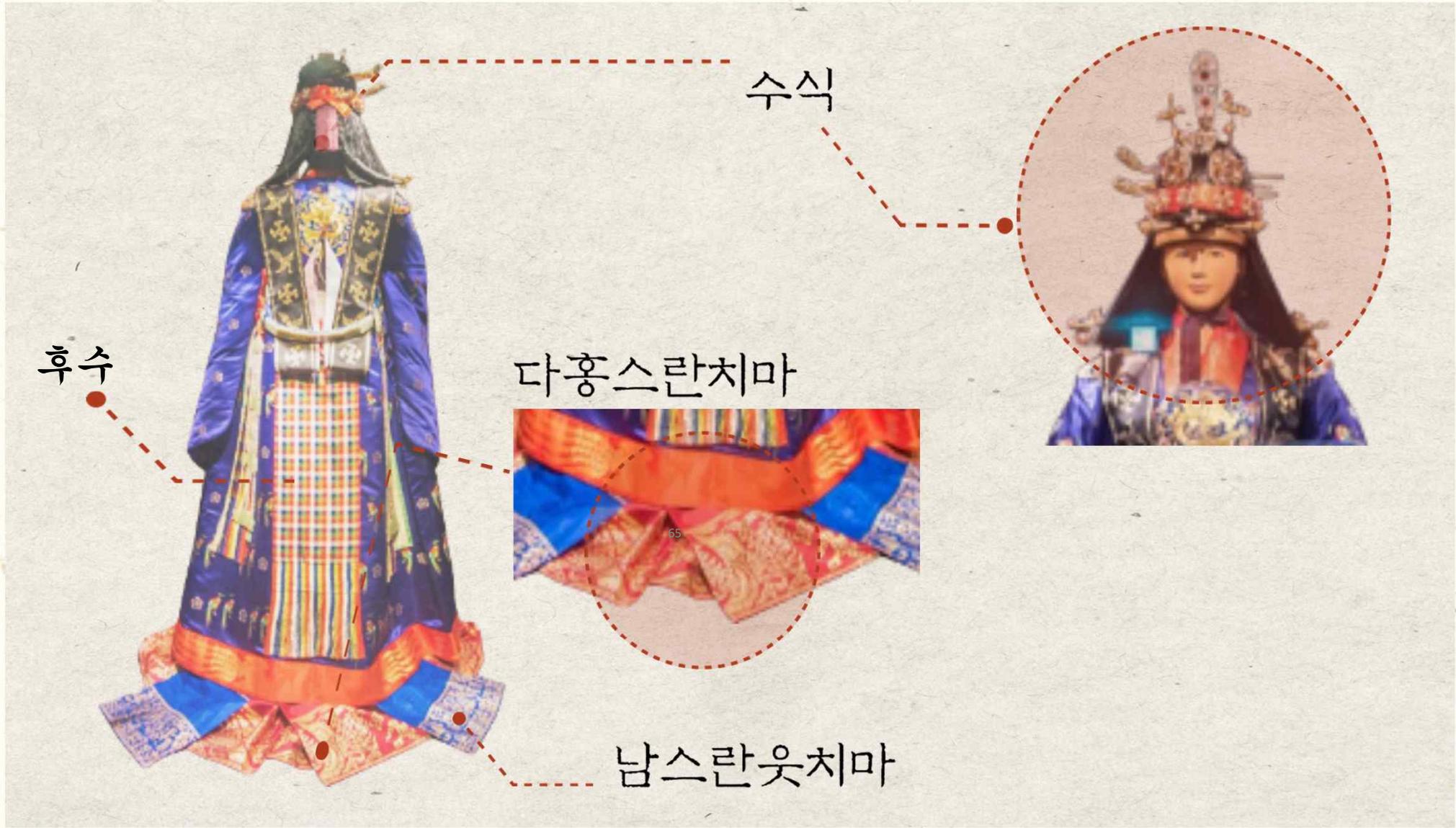


혼례 길일 법복

슈식 홍당삼 다홍슬란치마 남슬란웃치마 남슬란웃치마 후슈... 진주낭자 차고 진주선

혼례 길일에 입는 법복

수식, 홍장삼, 다홍색스란치마, 남색 스란웃치마, 후수...진주낭자 차고 진주선(을 든다)



수식

후수

다홍스란치마

남스란웃치마

영친왕비 혼례본 재현 모습(국립고궁박물관 전시)

한글
고전서체

한글 고전소설

왕실 여성들이 한글 고전소설을 읽어 왔음은 왕실 여성의 한글편지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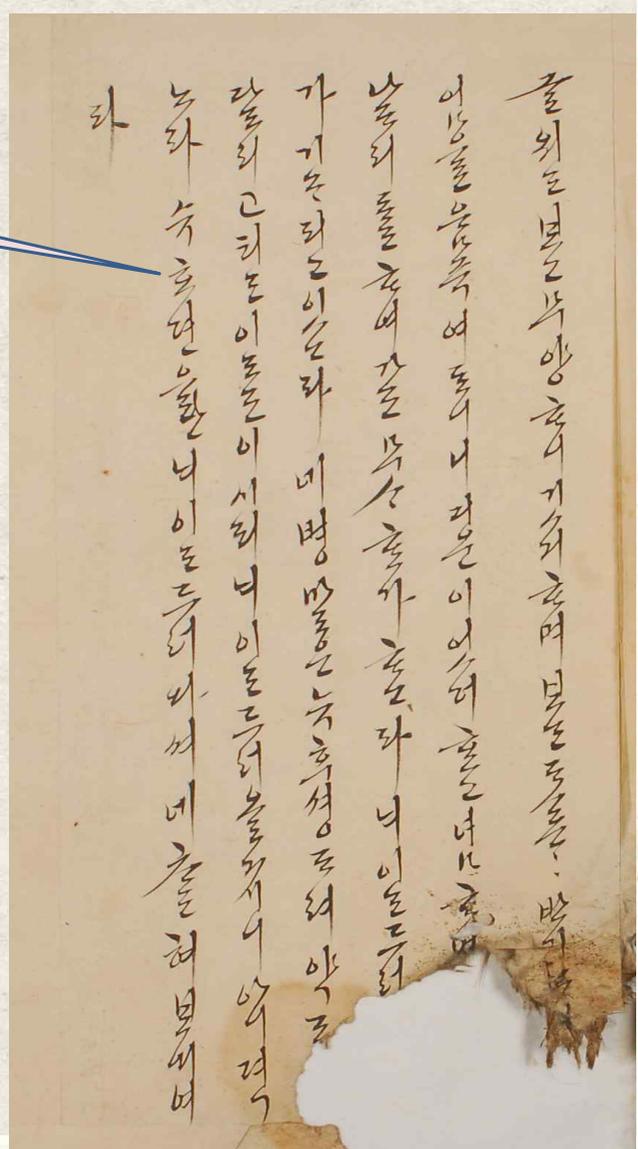
효종의 비 인선왕후(1618~1674)가 시집간 숙명공주에게 보낸 한글 편지에서 고전소설 〈슈호년〉, 〈녹의인년〉, 〈하북 니장군년〉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옴.

서명: 숙명신한첩의 장편 소설.
서명: 슈호전, 중국의 장편 소설.

한글 고전소설

슈호전 : 중국 장편 소설

<인선왕후가 딸 숙명공주에게 보낸 편지(1652~1674년, 숙명신한첩 수록)>
글월 보고 무양하니 깃거하며 보는 듯 든든 반기□□ □□엄으
로 움죽여 든니니 괴운이 엇더하고 념하며 □□□□ 나드리를
하여 가도 무스한가 흐노라 니일 드러□□ □가 기다리고 있노
라 네 병 말은 뉴휴성드려 약도 □□ 달리 고티는 일도 이시되5
니일 드러올 거시니 아니 덕노라 슈호전으란 니일 드러와셔 네
출혀 보내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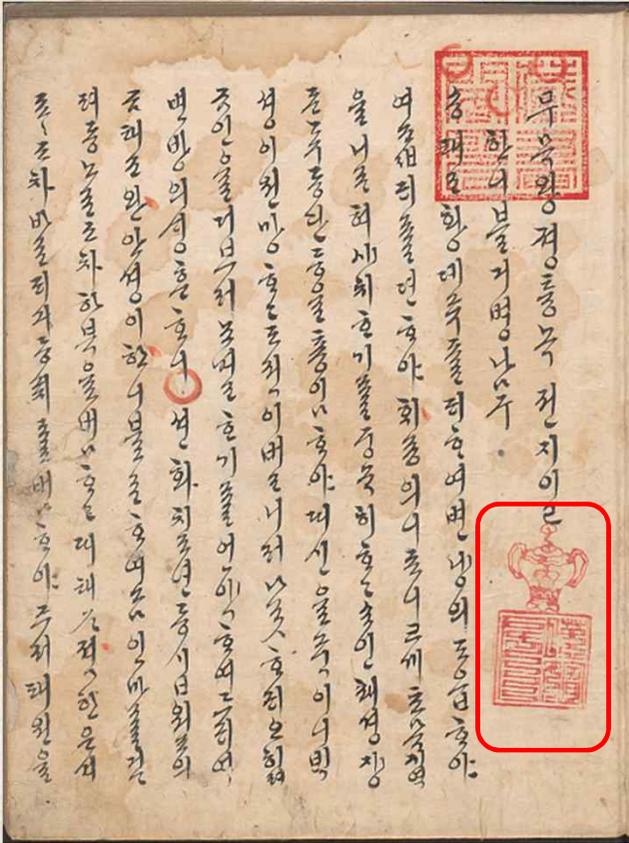
한글 고전소설

〈인선왕후가 딸 숙명공주에게 보낸 편지(1659년, 숙명신한첩 수록)
글월 보고 무양하니 깃거하며 보는 듯 든든 반기노라 그리 나간 디 여러 날이 되
드록 아마도 섭섭 무류하여 하노라 녹의인뎐은 고쳐 보내려 하니 깃거하노라
...(생략)

69
〈인선왕후가 딸 숙명공주에게 보낸 편지(1659~1662년, 숙명신한첩 수록)
글월 보고 무양하니 깃거하며 보는 듯 든든 반기노라 ...(중략)...하북니장군뎐 간
단 감역집의 벗긴 칩 초자 드러올 제 가져오나라

〈녹의인 전〉을 고쳐 보낸다고 하니 기쁘다.’, ‘〈하북 이장군전〉 보낸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왕실에서도 고전소설을 읽었으며 왕실과 사가에서 서로 소설이 오갔음을 알 수 있음.(임치균 2023)

한글 고전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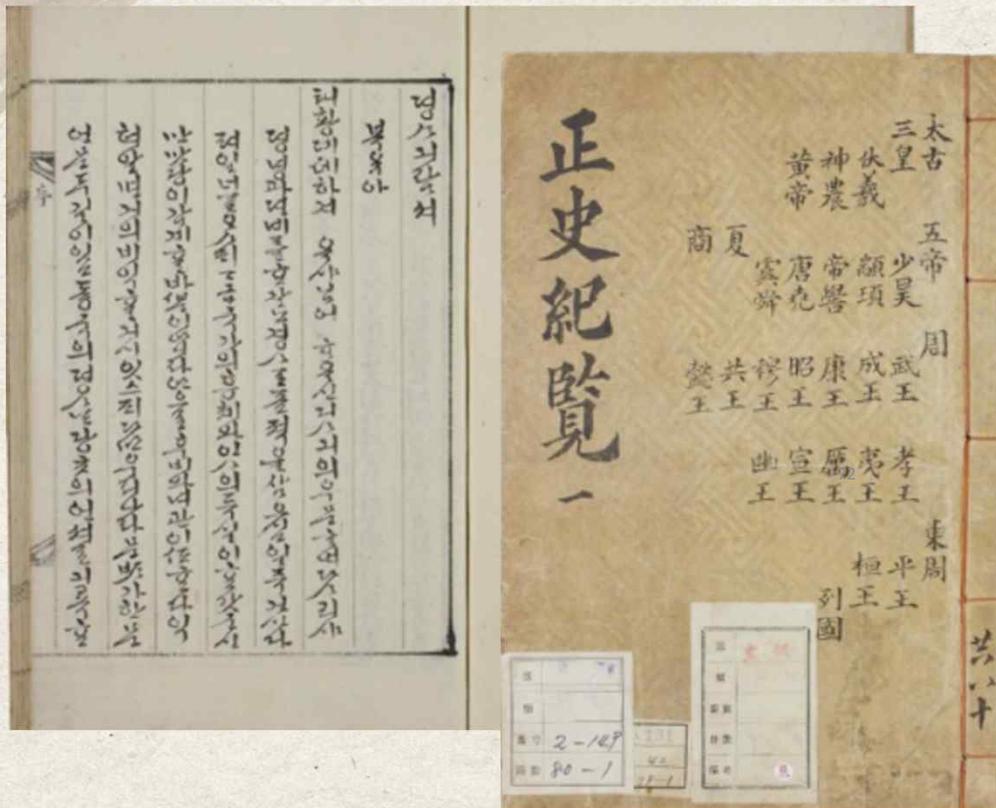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낙선재본 고전소설로 불리는 일군의 작품이 존재.
- 본래 연경당에 있다가 옮겨온 것으로 알려진 이 소설들은 조선 왕실에서 읽고 소장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이런 낙선재본을 조선 왕실의 소설이라고도 칭함.
- 낙선재본 고전소설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많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을 다루고 있음.
- 소설을 통해서라도 역사적 지식을 익혔던 것임.
- 사도세자의 어머니인 영빈 이씨의 소장 인이 찍힌 <무목왕정통록>, <손방연의>가 존재 의빈 성씨 등 최소 네 명 이상의 궁녀가 필사한 <곽장양문록>이 실재함.

(임치균 2023)

중국역사서
『덩소기람』

왕실 여성 교육을 위한 중국역사서 『정사기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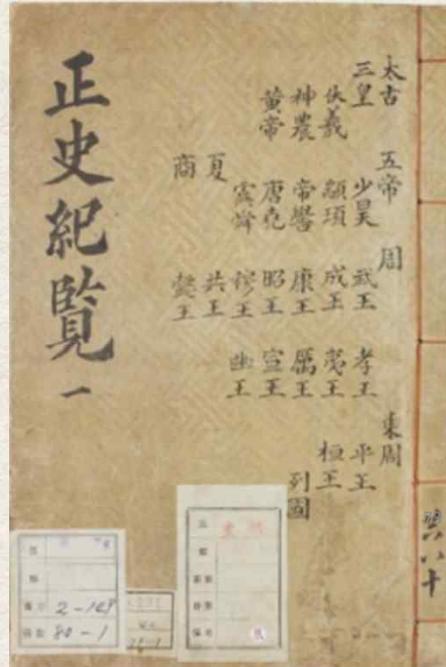
고종의 명으로 궁중의 여인들에게 중국 역사를 익히게 하고자 편찬한 중국 역사서.

덕온공주의 양자 윤용구가 5년에 걸쳐 편찬하여 1909년 10월 고종에게 바침.

다양한 중국의 역사서를 바탕으로 윤용구가 편찬하고 우리말로 번역한 후 직접 필사함.

중국 상고시대부터 명나라까지의 역사적 인물들의 행적을 다룸.

총 80권 80책
 윤용구가 우리말로 번역하고
 필사하여 고종에게 바친 것.



총 40권 40책으로 추정.
 현재 전하는 것은 8권 8책.
 장서각본과 내용은 같음.
 장서각본 2권이 1권으로 구성됨.
 자손들에게 주거나 집안 보관용
 으로 추정되기도 함.

(이재정 2019, 고은숙 201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표지 /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표지

왕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

- > 왕실 여성과 관련된 의례를 거행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의례 관련 한글 자료가 대표적임.
- > 왕실 여성의 사후에, 행실을 간명하게 적은 행장 같은 자료도 왕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에 포함될 수 있음.

왕실발기

『널성후비지문』

기묘년
조대비입궐기

왕실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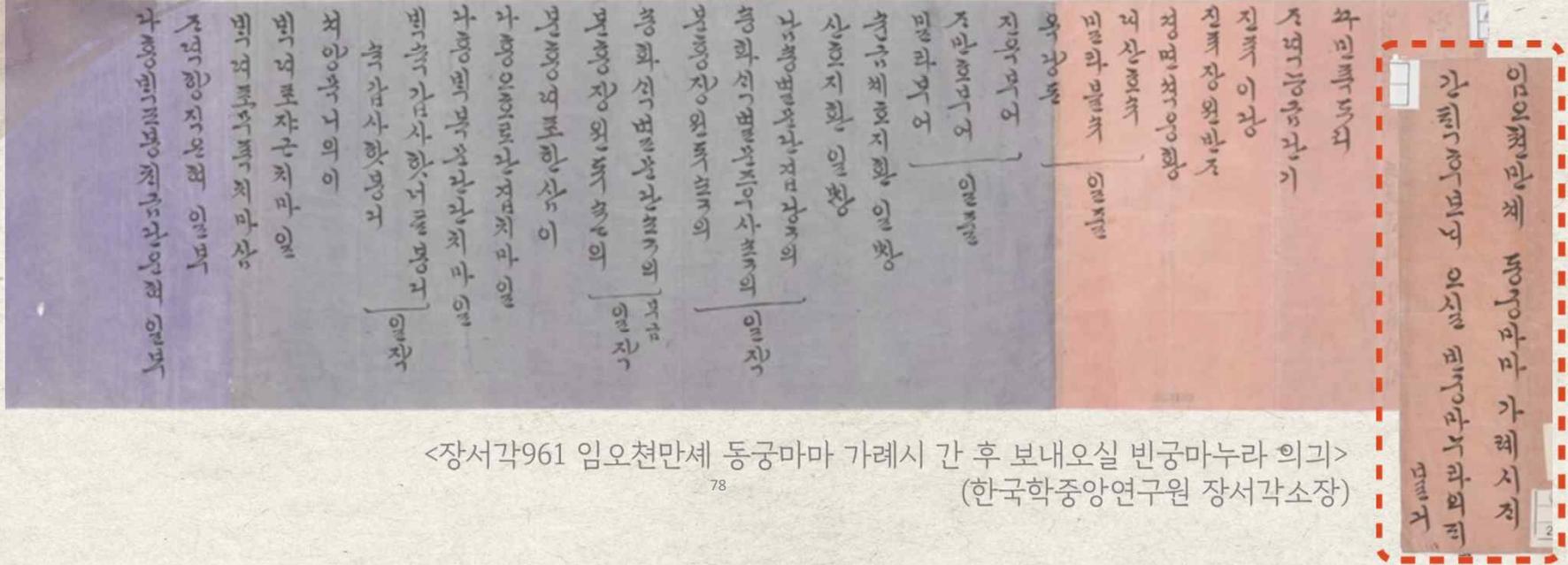
왕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왕실발기

“왕실발기”는 왕실에서 소용될 물품 혹은 소요된 물품의 목록과 그 수량을 적은 기록물을 말함.

“발기”는 ‘발기, 件記, 發記, 撥記, 拔記’ 등으로 표기되었음.

왕실 여성과 관련해서는 결혼, 장례, 제사, 탄일(誕日: 생일) 등의 행사와 관련하여 작성되었음. 혼례 때 마련한 왕실 여성의 의복 목록, 왕후의 제사 때 올리는 음식의 목록, 공주의 혼례 때 보내는 혼수 목록 등이 주를 이룸.

혼례 때 마련한 왕실 여성의 의복 목록



<장서각961 임오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간 후 보내오실 빈궁마누라 의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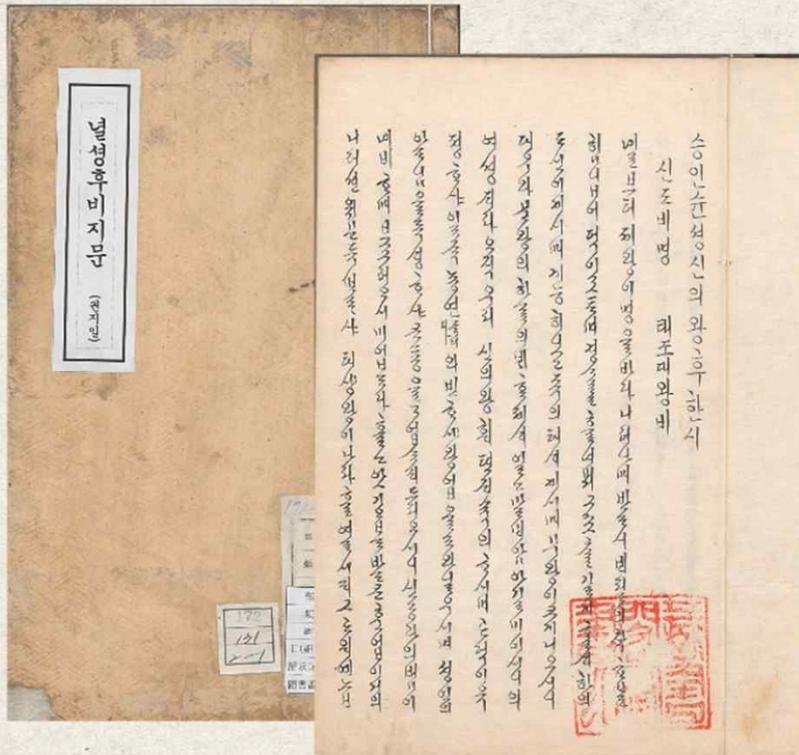
1882년(고종 19) 당시 세자였던 순종과 순명효황후 민씨(1872~1904)의
 가례에서 재간택 후 빈궁인 민씨에게 보낼 의대의 목록

시비주근니삼주근식오줄근더우
 삼줄근로물근이이줄근우
 향나인근이근우

더우근우근우 근개시
 왜주향상근인차근이근
 은노리개시근
 근근근근근근근근근
 근근근근근근근근근
 근근근근근근근근근

은노리개 십줄 니삼줄식 오줄 니오니
 삼줄 쏘 쓰오시니 이줄 유
 [은노리개 10줄 3줄씩 (10줄) 내 5줄 내오니
 3줄 또 쓰심. 2줄 있음.]
 해당 항목 아래 작은 글씨로
 물건의 출입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여 들어온
 혼수 물품에 대한 사용 양상을 알 수 있음.

왕실 여성의 행적을 기록한 열성후비지문 (列聖后妃誌文)



태조대왕비 신의왕후 한씨부터
영조대왕비 정성왕후 서씨까지
총 31명의 역대 왕후들의
행적과 관련된 글을 수록.

비빈들에게 단순히 역대 왕비들의 행적을
정확히 알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모범으로 삼도록 하는
여훈서적 성격을 갖는 한글필사본

8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박부자(2001)

사가에서 작성한 왕실 여성의 혼례기록

각묘년조대비입궐기

- 1819년(순조 19년) 조만영의 딸이 효명세자의 세자빈(훗날 신정왕후 조씨, 조대비)으로 간택되어 입궐하는 과정을 기록한 한글필사본.
- 누가 작성한 것이고 누가 필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조만영의 집에서 이루어진 간택과정부터 별궁, 궁궐 등을 배경으로 하는 혼례의 전 과정을 적고 있어 신정왕후 조씨의 집안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음. (신희경 김영 2022)

84

- 간택된 세자빈만 알 수 있는 세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기도 하지만, 가례와 관련된 공식적인 기록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세밀한 검증이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택과정, 간택 후 본궁에서의 생활, 가례와 관련된 복식 등 궁중 생활에 대한 언급이 있어 왕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록임에는 분명한 것으로 추정됨.

왕실 여성 한글자료의 가치

“장서각 소장 왕실 한글필사본의 가치” (황문환 2016)

- (1) 왕실 한글 문화를 실물로 전하는 자료
- (2) 왕실의 의례와 행사 진행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
- (3) 왕실 인물(특히 여성)의 교양과 독서 범위를 알려주는 자료
- (4) 궁중의 한글 서체를 보여주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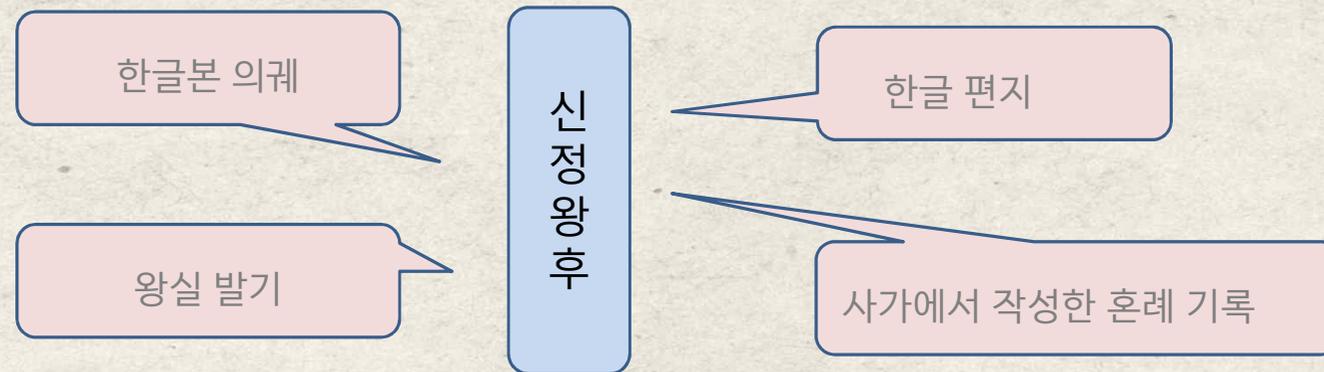
86

→ 왕실 한글 자료의 경우 주 대상이 왕실 여성이므로, 왕실 여성의 한글 자료도 이와 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왕실 여성 한글 자료의 특징

→ 한 시대를 살았던 여성에 관한 다방면의 한글 자료가 존재

→ 한 사람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와 같이 다양한 한글 자료가 집중된 것은 왕실 여성이 유일함.



[가치] 왕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왕실 생활사를 전하는 자료

왕실 여성의 한글 사용이 실물로 전하는 자료

참고문헌

- 고은숙(2019), 「아버지 순조의 『자경전기』를 한글로 풀어 쓴 덕온공주의 『조경년기』」, 국립한글박물관 소식지 『함박웃음』 제70호, 국립한글박물관.
- 고은숙(2021), 「덕온공주 집안 3대 한글 자료의 국어학적 특성과 가치 : 언어·문자적 특성 및 표기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1,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33.
- 국립고궁박물관(2010), 『영친왕 일가 복식』.
- 국립고궁박물관(2023), 『활옷 만개滿開, 조선왕실 여성 혼례복 특별전시 도록』.
- 국립한글박물관(2014), 『소장자료총서1-김씨부인한글상언 정조어필한글편지첩 곤전어필』.
- 국립한글박물관(2019), 『2019년 소장자료총서 덕온공주가의 한글 1』.
- 국립한글박물관·한민족문화학회(2019), 『신정왕후 조대비와 조선후기의 왕실문화 : 한글 일기 <그묘년 조대비 입궐일기> 발굴 기념』, 서울: 국립한글박물관, 부산: 한민족문화학회.
- 김문식(2003), 「조선시대 왕실자료의 현황과 활용 방안」, 국학연구 2, 한국국학진흥원, 23-47.
- 김봉좌(2015), 「왕실 한글 필사본의 전승 현황과 가치」, 국어사연구, 20, 국어사학회, 39-64.
- 김인희, 「《곤전어필(坤殿御筆)》연구」, 『영주어문』, vol.30, 영주어문학회, pp.39-63, 2015.
- 김일근(2002), 「규문수지여행지도의 공개와 의의」, 『조선여인의 삶과 문화』, 서울역사박물관.
- 박부자(2019), 「왕실발기의 국어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 『藏書閣』 4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240-269쪽.
- 박부자(2021), 「왕실발기의 형태와 제작목적 -장서각본을 중심으로-」, 『藏書閣』 46,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6-45쪽.
- 박부자(2022),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왕실발기의 현황(1)-고종대 이전 왕실발기를 중심으로」, 『고궁문화』 제15호, 국립고궁박물관, 227-252.
- 박부자(2023),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왕실발기의 현황(2)-순종대 이후와 연대 미상의 왕실발기를 중심으로-」, 『고궁문화』 제16호, 국립고궁박물관, 175-208.
- 신희경·김영(2022), 「<그묘년도대비입궐일기>의 내용과 성격」, 『人文科學研究』 45,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73-213.
- 이민주(2020), 「<그묘년 조대비 입궐일기>에 나타난 혼례복식 -처자(處子)에서 세자빈(世子嬪)이 되기까지-」, 『한민족문화연구』 69, 한민족문화학회, 7-47.
- 이남희(2020), 「조선시대 언문자료와 왕실여성의 생활세계-연간과언교그리고 언문저술」, 인문학연구 제29집, 25~53

참고문헌

- 이승희(2013), 「조선후기 왕실 여성의 한글사용 양상」, 『한국문화』 61, 서울대학교 규장각, 301~ 325쪽.
- 이승희(2022),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정순왕후 한글편지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한국문화』 10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64.
- 이승희(2023), 「왕실 여성의 한글편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5-44.
- 임치균(2019), 「<규문슈지여행지도(閨門須知女行之圖)> 연구」, 『韓國古典研究』 45, 한국고전연구학회, 181-219.
- 정재훈(2014), 「조선 후기의 한글 과 여성-일상에서 정치까지」, 『소장자료총서1-김씨부인한글상언 정조어필한글편지첩 곤전어필』, 국립한글박물관, 150-161.
- 정하영(2006), 「신발굴 자료 해제 및 소개 ; 숙종 계비 인원왕후(仁元王后)의 한글 기록: 「선군유스(先君遺事)」와 「선비유스(先妃遺事)」」, 『한국문화연구』 1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77-317.
- 황문환·박부자·이명은·이은주(2010), 『정미가례시일기 주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황문환·박부자·이명은·이은주·조정아(2018), 『정미가례시 복식어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황문환(2016), 장서각 소장 왕실 한글 필사본의 가치, 『한글-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황문환(2015), 『조선시대 한글편지 언간(諺簡)』, 역락.

감사합니다.